

“광주서 만든 콘텐츠가 세계로”... ‘다이노맨’ 개봉 박두

김호락 ㈜스튜디오버튼 대표

무등산 배경 애니메이션 영화
25일 전국 메가박스 개봉 앞뒤
지역 명소·동물 이스터에그 가득
“멸종 공룡 통해 환경 중요성 전달”

“멸종된 꼬마 공룡들이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여행을 하며 멸종동물들을 구조해 되살리는 이야기를 다룹니다. 생명의 소중함과 자연보호에 대한 테마를 가진 착한 애니메이션을 만들고자 했어요.”

광주의 상징인 무등산을 배경으로 제작된 애니메이션 영화 ‘다이노맨: 공룡산의 비밀’ 개봉을 앞둔 16일 본보는 ㈜스튜디오버튼 대표이자 이 작품을 연출한 김호락 감독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작품은 2022~2023년 방송된 TV 시리즈 ‘다이노맨’의 세계관을 확장한 약 60분 분량의 가족형 콘텐츠로, 시간여행을 통해 멸종위기 동물들을 구하는 꼬마 공룡 히어로들의 모험을 그린다.

이 작품은 무엇보다 “지구의 모든 생명은 연결돼 있으며,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한다”는 공감과 책임감을 메시지로 전달하는데 초점을 둔다.

“다이노맨 구조대는 멸종된 공룡들이 모여 현재의 멸종위기 동물들을 구하는

히어로 팀”이라는 김 감독의 말처럼 영화에는 아이들이 쉽게 공감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캐릭터마다 개성 있는 성격과 능력이 부여됐다.

시간여행이라는 설정이 도입된 계기도 흥미롭다. 김 감독은 “다이노맨 구조대”는 티라노사우루스, 브론토사우루스, 프테라노돈, 트리케라톱스 등 이미 멸종된 공룡들로 구성됐다. 이들이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 멸종 위기의 동물들을 구하는 이야기를 통해 단순히 재미뿐 아니라 생태 교육적인 메시지도 함께 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의 랜드마크를 배경과 스토리에 자연스럽게 녹여 광주시민들은 물론 타 지역민들 또한 관심 가질 만한 요소로 기능하게 배치한 것도 특징이다.

김 감독은 “무등산 입구와 정상, 서석대, 양림동 사직타워, 광주천 산책로, 국립광주과학관 등을 스토리 속 배경으로 활용했다. 무등산 수박, 수리부엉이, 수달처럼 광주를 상징하는 소재들도 함께 등장시켰다”며 “지역 어린이들이 영화를 보면서 반가워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스터에그가 담겼다”고 말했다.

배경으로 무등산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그는 “광주의 대표적인 자연자산이자 상징적인 장소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도 등재된 만큼, 지역 정체성을 대표



애니메이션 ‘다이노맨’ 캐릭터 모형과 포즈를 취하고 있는 김호락 감독. ㈜스튜디오버튼 제공

하는 공간을 조명하고 싶었다. 그런 무등산에서 태어난 주인공이 세계를 지킨다는 설정이 지역과 콘텐츠를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는 구상이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기존 시리즈와 차별화된 극장판만의 매력을 살린 장치들도 돋보인다. TV 시리즈가 시간여행을 통해 다양한 멸종 동물들을 구조하는 유니버스식 에피소드 중심이었다면, 극장판은 주인공 다이노맨이 영웅으로 성장하는 연대기적 서사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또한 우주에서 온 악당과의 대결 등 액션 요소를 강화해 극장 관람의 재미를 높였다.

김 감독은 “5세 이하 아이들도 끝까지 몰입할 수 있도록 5분 단위로 사건과 액션

을 배치해 지루하지 않게 구성했다”며 “3D 카툰렌더링 기법을 활용해 시각적인 집중도도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번 극장판은 2023년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한 ‘지역특화콘텐츠’ 지원사업에 선정되면서 본격적으로 기획됐다. 하지만 제작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제작비와 마케팅 비용을 스튜디오버튼 자체 예산으로 2년간 확보해야 했던 점은 제작 과정에 있어 큰 어려움이었다고 김 감독은 토로했다. 그는 “예산이 한정된 만큼 효율적인 제작 방식, 3D 카툰렌더링 기법을 통해 퀄리티와 제작 속도의 균형을 맞추는 데 집중했다”며 “하이라이트 시퀀스 외에 더 좋은 영상과 퀄리티를 올리지 못

한 것이 제일 아쉽지만, 투자사로서 꾸준한 지원과 격려가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이노맨”은 런칭 3년 만에 동남아, 중국, 유럽 등 10개국에 수출돼 현지어로 더빙 방송되고 있다. 작품 캐릭터들의 귀여운 디자인과 착한 이야기 구조가 세계 무대에서도 통했다는 평가다. 특히 유럽에서는 자연 친화적 메시지에 긍정적인 반응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현재 완구 3만개를 수출했으며, IPTV, OTT, 공중파, 케이블TV 등 다양한 플랫폼에 선판매 예약이 이뤄지고 있다. 극장 수익 외에도 IP를 활용한 글로벌 수익 다변화가 가능하다는 점이 ‘다이노맨’의 강점이다.

김 감독은 ‘다이노맨 시즌3’를 준비 중이며 심플한 캐릭터들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시즌3에서는 산리오처럼 더 귀엽고 심플한 디자인으로 리뉴얼한 캐릭터들이 등장할 예정”이라며 “다음 극장판은 30분 미만의 러닝타임으로 저렴한 극장티켓가격, 유아와 보호자들에게 개선된 관람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배급사와 논의 중이다”고 덧붙였다.

극장판 애니메이션 ‘다이노맨: 공룡산의 비밀’은 오는 25일부터 전국 메가박스에서 만날 수 있다.

박찬 기자 chan.park@jnilbo.com

“목포 여름밤 달구는 미술·클래식 하모니 공연”

25일 목포 KR갤러리

전라남도 목포에서 미술 전시와 클래식 음악을 접목한 특별한 문화행사가 마련된다.

KR갤러리는 오는 25일 오후 7시30분 서양화가 주강정 작가의 첫 개인전 개최를 기념해 클래식 공연 ‘라우트앙상블과 함께하는 여름이야기’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서양화가 주강정의 첫 개인전과 클래식 음악을 접목한 무대로 꾸며진다. 클래식 앙상블 팀인 라우트앙상블이 참여하며 바이올린 이신애, 바이올린 남도경, 클라리넷 나보배, 첼로 서케이 등 실력 있는 연주자들이 여름밤을 수놓는 아름답고 서정적인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라우트앙상블은 독일어로 ‘큰 소리의’를 뜻하는 ‘라우트(Laut)’를 이름으로 삼아, 클래식을 비롯해 대중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다채로운 음악을 선사하고 있다.



연주회 관람은 무료로 선착순 30석 한정이며, 예약 및 문의는 KR갤러리(010-2110-8990)를 통해 가능하다. 한편 이번 행사는 KR갤러리가 주최하고 무안예총이 협력, 케이알건설㈜이 후원한다. 박찬 기자

16회 광주여성영화제, 권 장·단편 공모... 27일까지

여성 서사 담은 작품 대상
올해부터 장편 부문 신설

16회 광주여성영화제가 오는 27일 자정까지 권 장편 및 단편 부문 작품을 공모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공모에서는 기존 단편 부문에 더해 장편 부문이 새롭게 신설됐다. 동시대 여성의 삶을 보다 깊이 있게 조명하고, 장편 서사에 도전하는 창작자들에게 새로운 무대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다.

공모 대상은 여성 서사를 담은 작품으로, 장르나 감독의 성별과 무관하게 출품할 수 있다. 러닝타임 40분 미만의 단편은

연출 편수 제한 없이 출품 가능하며, 40분 이상의 장편은 장편 연출 경험이 2편 이하인 감독에 한해 출품할 수 있다.

출품 대상은 2024년 9월 이후 완성된 작품이며, 접수는 27일 자정까지 온라인 신청 폼을 통해 진행된다. 신청 양식 및 자세한 안내는 광주여성영화제 공식 홈페이지(www.wffig.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수된 작품은 다음달 중 예선 심사를 거쳐 본선 진출작을 선정하며, 선정작은 11월6일 개막 예정인 16회 광주여성영화제에서 ‘권 당선작’ 섹션 등을 통해 상영된다. 박찬 기자

관객·아티스트의 ‘문턱’을 허물다... 풍성해진 기획으로 컴백

25일 보헤미안 공연장서 첫선
기획 공연 4회·특별 공연 2회

관객과 공연장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특별한 기획 공연 시리즈 ‘문턱’이 올해도 돌아온다. 기존 음악 중심의 공연 4회와 함께 25년 경력의 와인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음회가 결합된 특별 공연 2회가 새롭게 추가됐다.

국악콘텐츠제작소 나랩은 ‘문턱’의 올해 첫 공연이 ‘팔방미악이로구나’를 주제로 오는 25일 광주광역시 동구 보헤미안 공연장에서 열린다고 16일 밝혔다. 이 공연은 전통과 현대,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아티스트들이 참여해 음악의 다채로운 결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어 다음달 29일 ‘특별한 밤의 애주가’, 11월16일 개최되는 ‘특별한 낮의 권주가’는 각각 와인 시음이 결합된 음악회로, 단 40석 한정 관객에게 깊이 있는 음향과 미각의 경험을 제공한다.

‘문턱’ 공연의 입장권은 전화권(일반 15만원)과 회차별 입장권(일반 2만5000~4만5000원, 청소년 1만원)으로 구분된다. 특히 8월과 11월 와인 시음이 포함된 공연은 만 18세 이상만 입장이 가능하다.

한편 ‘관객 입장하신다, 문턱을 낮춰라!’라는 슬로건 아래 2023년 첫선을 보인 ‘문턱’은 매년 하반기 6회의 공연을 선보이며 지역 공연문화에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왔다. 박찬 기자

국악으로 물들이는 한-트리니다드토바고 수교 40주년 기념공연

19일 트리니다드토바고 수도
가·무·악 아우른 풍성한 무대

국립남도국악원은 대한민국과 트리니다드토바고 수교 40주년을 기념해 특별 공연을 오는 19일(현지 시간) 트리니다드토바고의 수도 포트오브스페인 소재 NAPA(국립공연예술아카데미) 공연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외교부 주최로, 주트리니다드토바고 대한민국대사관과 문화

체육관광부 국립남도국악원이 공동으로 준비했다. 대한민국의 전통음악을 통해 양국 간 깊은 우정을 되새기고 문화적 공감대를 확장하기 위해 기획된 행사다.

국립남도국악원은 가·무·악이 어우러진 풍성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역동적인 사물놀이로 시작으로, 섬세한 호흡의 대금산조, 화려한 군무의 부채춤, 한국의 정서를 담은 판소리 ‘사랑가’, 그리고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대

동놀이까지, 한국 전통예술의 진수로 트리니다드토바고를 뜨겁게 물들인다. 두 나라는 1985년 수교 이래 40년간 경제,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박정경 국립남도국악원장은 “이번 공연을 통해 국악의 아름다움과 한국 문화의 깊이를 전 세계에 소개하고, 양국의 문화 파트너십이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찬 기자



2025 해외공연 트리니다드토바고. 국립남도국악원 제공